

#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로모형 분석

박영숙<sup>1</sup> · 권윤희<sup>2</sup>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sup>1</sup>,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Park, Yeong Sook<sup>1</sup> · Kwon, Yunhee<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fitness of a path model for the relationship among daily life stress, problem of life,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247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and AMOS programs. **Results:** Daily life stress, problem of lif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showed direc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while daily life stress and problem of life showed indirec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Daily life stress and problem of life showed direct effects 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hypothetical path model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was proven correct. **Conclusion:**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s the reduction of daily life stress, problem of life, depression and enhancement social support in order to preventi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ey Words:**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Life stress, Depressio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행위인 자살은 아동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류의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이 매년 자살을 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12.0명, 일본은 21.2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Statistics Korea,

2012a). 국내의 자살 사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로 나타나,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3명(Statistics Korea, 2012b)이 자살하여 청소년 자살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살의 연령별 증가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자살 성공률은 성인기에 최고조를 이루고 있으나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이다(Daniel & Goldston, 2009). 한국의 경우 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의 23.7%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

**주요어:** 청소년, 자살생각, 스트레스, 우울

**Corresponding author:** Kwon, Yunhee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390 Taejeon-dong, Buk-gu, Daegu 702-723, Korea

Tel: +82-53-320-1056, Fax: +82-53-320-1761, E-mail: sengbira@hanmail.net

- 이 논문은 2012년도 동일문화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임.

-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Dongil foundation of scholarship.

**투고일:** 2013년 1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7월 29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 5.8%로 보고되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10년 새 1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청소년기는 기존 사회질서와 규범을 습득해야 하고 대학입시와 관련된 과도한 학습량,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 및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많은 발달 과업을 가진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다원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다른 연령층의 집단과는 달리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발달 특성으로 자신이나 또래의 자살위험에 대해 어른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하고자 하는 행동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Hawton, Kingsbury, Steinhardt, James, & Fagg, 1999).

자살 관련 요인에는 우울, 절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기술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있으며(Rohde, Seeley, Rohling, & Rohling, 2003; Sanchez, 2001), 최근 국내연구(Kwon, 2009; Park, 2007)결과에서도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등이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국내 청소년 자살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이미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시도한 임상집단에서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의 자살을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Worley, 1997). Conner, Duberstein, Conwell와 Caine (2003)는 평소에 기능을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적인 욕구, 또는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및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보복 등이 중요한 자살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그만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자살을 선택하며,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Smocek et al., 2000)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의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 요인으로 부모갈등, 가족의 의사소통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Smocek et al., 2000). 또한,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을 만나는 공간이며, 자신의 학업을 성취하고 사회

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집단 및 교사와의 문제로 자존심이 저하되고 비행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행동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Lubell & Vetter, 2005; Matsuishi et al., 2005). 그리고 최근에는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 심해지면서 선·후배, 동기간의 폭력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을 돕고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자살사이트'에 접속해오다 자살한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단일 특성보다는 다차원적 환경 특성을 고려하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결과물로 보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내적, 가정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상행동을 설명하고 있다(Hoffman, 1984). 청소년 시기에서 이상행동의 하나인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상관관계와 몇 개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Kang, 2010; Kwon, 2009; Park, 2007)가 대부분이었으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모형에 대한 Park (2010)의 연구가 있었으나 영향요인으로 학교 위험요인을 한정된 연구설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학교, 문화 등의 생태환경과 개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을 이해해야 한다는 Bronfenbrenner (1979)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경로모형을 제시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방적 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로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변인들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 수정모형의 부합도와 효과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최종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 3.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경로

본 연구의 개념 틀은 선행연구 고찰과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생태체계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결과물로 보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내적, 가정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요인을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가정과 학교환경에서의 삶의 문제를 외생변수, 가족과 친구의 지지인 사회적 지지 및 내적 감정인 우울을 매개변수, 최종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정도과 효과를 검증하는 공분산경로분석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총 8개를 임의 선정하여 그곳에 재학 중인 중학생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각각 1개 반에서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한 3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314부의 자료 중 설문지가 완성되지 않은 자료 12부를 제외한 302부의 설문지를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모든 문항 자살생각과 관련이 없는 응답을 한 55명을 제외하고 247명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경로의 자유 모수치 수(전체 모수치 수-고정 모수치 수) × 20의 근거(Mun, 2009)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산출된 12개의 자유모수치 수(전체 모수치 15개-고정 모수치 3개)는 240명으로 요구되어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일상생활 스트레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Yoo와 Han

(1995)이 개발하고 Shin (199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정, 학업, 친구, 학교영역으로 구성된 27문항 4점 척도이며,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2) 삶의 문제

청소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성문제, 부모님과의 불화문제, 성적문제, 자존감문제, 선생님과의 관계문제, 동성친구문제, 따돌림문제, 학교폭력문제, 학업문제로 구성되어 사용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는 상담심리학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청소년 상담전문가 1인의 자문을 거쳐서 완성된 9개 문항,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N=30)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조사(N=247)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다.

#### 3) 사회적 지지

청소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Zimet, Dahlem, Zimet와 Farley (1988)가 개발한 MSPSS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을 Kang (2011)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 친구 등의 지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5점 척도, 12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 Kang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다.

#### 4) 우울

우울척도는 Chon, Choi와 Yang (2001)이 개발한 한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외로움, 무력감, 무가치함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20문항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 Chon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5)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개발한 YRBSS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을 근거로 Kang (2000)이 개발한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측정도구 중에서 자살생각 및 시도행위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5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 정도가 높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N=30)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조사(N=247)에서 Cronbach's  $\alpha = .79$ 였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회의 연구보조자 훈련을 통해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한 이해를 시켰다. 직접면접을 하는 역할모델링 모의훈련을 하여 실제 내용과 차이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후, 설문지의 공통된 단어 사용 빈도를 분석한 자료수집자 간의 일치도가 98~99%로 나타나 의사전달 내용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료수집 전 대상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 학생주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도움을 주기로 수락한 8개 학교와 방문일자를 약속하여 방문하였다. 조사자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 외의 시간에 교실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들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소요된 시간은 대상자 1인 당 15~20분 정도이었으며,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9.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로 분석하였다.
- 측정변인들은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검증을 위해 첨도와 왜도를 구하였으며,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모형의 부합도는  $\chi^2$ , GFI, AGFI, RMSEA의 부합도 지수를 구하였으며, 경로모형의 유효성 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해 모수치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검증하였다.

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중1 29명(11.7%), 중2 55명(22.3%), 중3 56명(22.7%), 고1 53명(21.4%), 고2 54명(21.9%)이었다. 대상자의 종교는 '무교'가 148명(59.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상' 38명(15.4%), '중' 153명(61.9%), '하' 56명(22.7%)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모+자녀' 형태가 212명(8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경제상태는 '상' 62명(25.1%), '중' 138명(55.9%), '하' 47명(19.0%)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7)**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Gender	Male	98 (39.7)
	Female	149 (60.3)
Grade	1st year of middle school	29 (11.7)
	2nd year of middle school	55 (22.3)
	3rd year of middle school	56 (22.7)
	1st year of high school	53 (21.4)
	2st year of high school	54 (21.9)
Religion	Protestant	29 (11.7)
	Buddhism	43 (17.4)
	Catholic	22 (8.9)
	None	148 (59.9)
	Others	5 (2.0)
Record	Above	38 (15.4)
	Average	153 (61.9)
	Low	56 (22.7)
Family structure	Parents+children	212 (85.8)
	Grandparents+parents+children	30 (12.1)
	Single parent+children	2 (0.8)
	Alone	3 (1.2)
Economy status	Above	62 (25.1)
	Average	138 (55.9)
	Low	47 (19.0)

#### 2.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우울,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83 \pm 0.41$ 점, 삶의 문제는 5점 만점에  $1.39 \pm 0.66$ 점,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59 \pm 0.78$ 점, 우울은 4점 만점에  $1.55 \pm 0.46$ 점, 자살생각은 5점 만점에  $1.33 \pm 0.46$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첨도는 절대값 10 이하, 왜도는 절대값 3 (Mun, 2009) 이하를 확인한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98명(39.7%), 여자 149명(60.3%)

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우울, 자살생각 관계는 첨도 10 이하, 왜도 3 이하로 나타났다(Table 2).

### 3. 가설적 경로모형의 검증

#### 1) 가설적 경로모형의 부합도

가설적 경로모형의 부합도는 일반적으로  $\chi^2$ 값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경로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chi^2=0$ 으로 나타나 부합도는 완전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3).

#### 2)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 모수치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beta=0.21, p<.001$ ), 삶의 문제( $\beta=0.28, p<.001$ ), 사회적 지지( $\beta=-0.13, p=.014$ ), 우울( $\beta=0.54, p<.001$ )이었다.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beta=-0.27, p<.001$ ),

삶의 문제( $\beta=-0.12, p=.049$ )이었으며,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beta=0.31, p<.001$ ), 삶의 문제( $\beta=0.32, p<.001$ )이었다.

### 4. 가설적 경로모형의 수정

#### 1) 수정 경로모형의 부합도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 경로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chi^2$ (CMIN), GFI, AGFI, RMSEA, CFI의 부합도 지수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정 경로모형의 부합도를 가설적 경로모형의 부합도와 비교하여 1개 경로가 제거되어 간명해진 것에 비해 부합도 감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1, p=.137$ ). 또한 양호한 부합도의 기준이 GFI, AGFI, CFI 값이 0.9 이상, RMSEA의 값이 0.1 이하의 기준(Mun, 2009)에서 수정 경로모형의 GFI (0.99), AGFI (0.94), RMSEA (0.07), CFI (0.99)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 2) 수정 경로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본 연구의 수정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 모수치와 유효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aily Life Stress, Problem of Life,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247)

Variable	Daily life stress	Problem of life	Social support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M±SD	Kurtosis	Skew
	r (p)	r (p)	r (p)	r (p)	r (p)			
Daily life stress	1.00					1.83±0.41	3.76	1.68
Problem of life	.44 (<.001)	1.00				1.39±0.66	-0.56	0.32
Social support	-.32 (<.001)	-.24 (<.001)	1.00			3.59±0.78	0.42	-0.39
Depression	.48 (<.001)	.47 (<.001)	-.26 (<.001)	1.00		1.55±0.46	1.63	1.29
Suicidal ideation	.20 (.001)	.46 (<.001)	-.26 (<.001)	.60 (<.001)	1.00	1.33±0.46	3.42	1.83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 of Hypothetical and Modified Path Model (N=247)

Goodness	$\chi^2$ (CMIN)	p	DF	GFI	AGFI	RMSEA	CFI
Hypothetical path model	0,00	-	0	1,00	-		
Modified path model	2,21	.137	1	0,99	0,94	0,07	0,99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으며,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수정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Figure 2 와 같다.

수정 경로모형의 경로 모수치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beta=0.21$ ,  $p<.001$ ), 삶의 문제( $\beta=0.28$ ,  $p<.001$ ), 사회적 지지( $\beta=-0.13$ ,  $p=.013$ ), 우울( $\beta=0.54$ ,  $p<.001$ )이었다.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beta=-0.27$ ,  $p<.001$ ), 삶의 문제( $\beta=-0.13$ ,  $p=.049$ )이었으며, 우울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 경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beta=0.34$ ,  $p<.001$ ), 삶의 문제( $\beta=0.33$ ,  $p<.001$ )이었다.

5.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측정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이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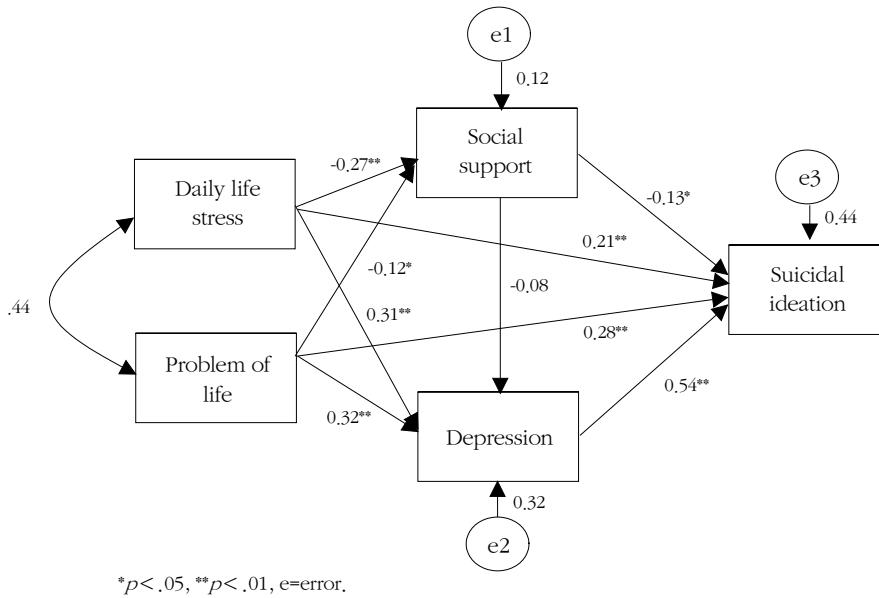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path model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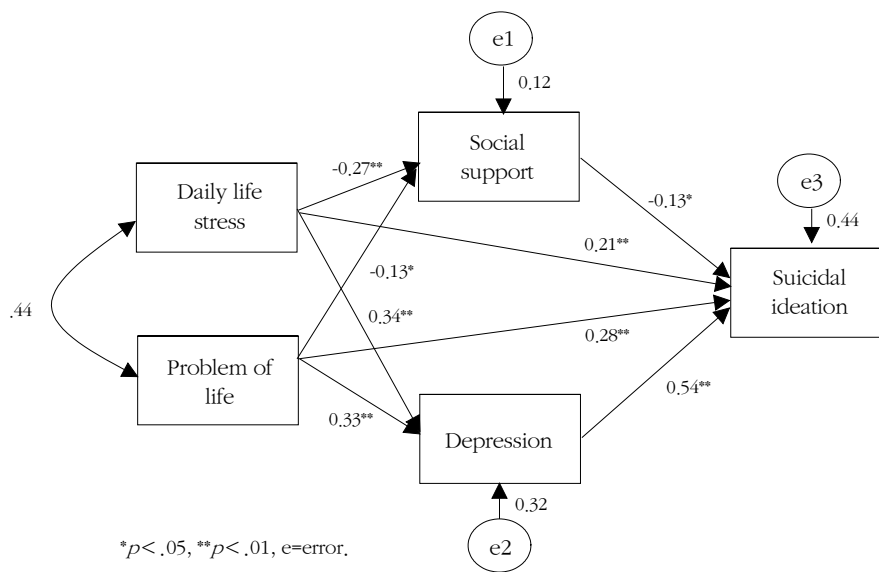


Figure 2. Modified path model diagram.

접효과가 있었으며,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가 간접 효과 변수로 나타났다. 이중 자살생각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우울이었으며, 다음으로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64.1%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효과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삶의 문제에 비해 일상생활 스트레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수는 사회적 지지를 12.1%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효과에서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삶의 문제에 비해 일상생활 스트레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수는 청소년의 우울을 52.5%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시도되었다.

경로모형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이었다. 즉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성 및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우울(Yoo, Son, & Nam, 2008), 우울과 외로움(Kwon, 2009), 일상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Kang, 2010), 교사관계위기(Park, 2010), 교육관계(Hwang Bo, 2011) 변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가 간접효과 변수이었는데 직접효과 수준이 일상생활 스트레스 0.21, 삶의 문제 0.27에 비해 간접효과 수준이 일상생활 스트레스 0.21, 삶의 문제 0.19로 나타나 직접효과보다 작은 효과이었

다. 이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는 심리, 사회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반드시 매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경로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심리, 사회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 -0.12, 우울의 직접효과 0.54로 나타나 외생변수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 감소 뿐 만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Park (2010)의 연구에서 학교흥미위기, 학교성적위기, 친구관계위기 등 다양한 학교위험요인의 직접영향을 받는 우울 매개변수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는 직접변인과 매개변인의 적용이 동일하지 않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을 포함한 추후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우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삶의 문제, 일상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살생각을 64.1% 설명하였다. 이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Yoo, Son과 Nam (2008)의 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변인도 있지만 다른 변수를 추가적으로 규명한 것과 더불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학교위험요인을 외생변수, 부정적 자아존중감, 우울감, 회피적 대처를 내생변수로 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를 확인한 Park (2010)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심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N=247)

Variables	Categori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 <sup>2</sup>
Social support	Daily life stress	-0.27	0.00	-0.27	.121
	Problem of life	-0.12	0.00	-0.12	
Depression	Daily life stress	0.33	0.00	0.33	.525
	Problem of life	0.32	0.00	0.32	
Suicidal ideation	Daily life stress	0.21	0.21	0.42	.641
	Problem of life	0.27	0.19	0.47	
	Social support	-0.12	0.00	-0.12	
	Depression	0.54	0.00	0.54	

리적 특성인 우울과 사회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를 내생변수로 하여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살생각을 확인한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가 적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우울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체계인 사회적 환경요소, 미시체계인 가족, 학교 환경요소가 유기체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직접 효과가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Kang (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적상관이 있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단순 상관관계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반복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효과가 나타난 결과는 원인적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Kang (2010)의 연구맥락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문제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직접효과가 나타난 것은 동일 변수로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Sung, 2008) 및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Kang, 2011)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삶의 문제보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수는 사회적 지지를 12.1% 설명하였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삶의 문제보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우울을 52.5%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예측력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한 원충적 역

할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교육, 상담에 대한 지침서와 인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친구, 가족, 교사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므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조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효율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및 우울에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에서 간접효과가 있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우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삶의 문제, 일상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살생각을 64.1% 설명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삶의 문제보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수는 사회적 지지를 12.1% 설명하였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삶의 문제보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우울을 52.5%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로모형 탐색을 통하여 영향 변인들을 확인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 지역 광역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상자 표집, 남녀 대상자 표집 수 차이에 대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전체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로모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확대된 연구대상자에 대한 설계를 한 확대연구와 본 연구의 경로에서 확인된 변인들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 University Press.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2007 Young health status on line survey*. Retrieved July 3, 2012, from <http://www.cdc.go.kr/CDC/intro/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1-MNU0005-MNU0011&cid=8849>
- Chon, K. K., Choi,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Conner, K. R., Duberstein, P. R., Conwell, Y., & Caine, E. D. (2003). Reactive aggression and suicide: Theory and evidence. *Aggression of Violent Behavior, 8*(4), 413-432.
- Daniel, S. S., & Goldston, D. B. (2009). Interventions for suicidal you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3), 252-268.
- Hawton, K., Kingsbury, S., Steinhardt, K., James, A., & Fagg, J. (1999). Repetition of deliberate self-harm by adolescents: The role of psychological factors. *Journal of Adolescence, 22*(3), 369-378.
- Hoffman, M. L. (1984). Empathy, its limitation, and its role in a comprehensive moral theor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 283-302). New York: Wiley.
- Hwang Bo, S. Y. (2011).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from an eco-system persp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ang, M. O. (2011). *The benefi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group bullying and emotional stability of the victi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Kang, S. J. (2000). *A study on family function of child headed families under the care of relat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ang, S. O. (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juvenile'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suicide th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Rate of Death on OECD*. Retrieved May 20, 2013, from <https://www.kihasa.re.kr/html/tsearch/search.jsp>
- Kwon, E.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juveniles-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 Lubell, K. M., & Vetter, J. B. (2005). Suicide and youth violence prevention: The promise of an integrated approach. *Aggression of Violent Behavior, 11*(2), 167-175.
- Matsuishi, K., Kitamura, N., Sato, M., Nagai, K., Huh, S. Y., Ariyoshi, K., et al. (2005). Change of suicidal ideation induced by suicidal attempt.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9*(5), 599-604.
- Mun, S. B.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ng model*. Seoul: Hakjisa Publishing Co.
- Park, B. G.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505-522.
- Park, J. S. (2010). *The effects of school risk factors on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With a test the Baumeister' escape theory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Rohde, P., Seeley, J. S., Rohling, J., & Rohling, M. (2003). The life attitudes schedule-short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rrelates of adolescent suicide prone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3), 249-260.
- Statistics Korea. (2012a). *Cause of death 2011*. Retrieved July 6, 2012,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260141](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260141)
- Statistics Korea. (2012b). *Adolescents' index 2012*. Retrieved July 7, 2012, from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Sanchez, H. G. (2001). Risk factors model for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32*(4), 351-358.
- Shin, J. E. (1998).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of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mochek, M. R., Oblaczynski, C., Lauck, D. L., Green, P. T., Early, J. A., & Smity, J. E. (2000). Interventions for risk for suicidal and risk for violence. *Nursing Diagnosis, 11*(2), 60-68.
- Sung, Y. M. (2008). *Adolesc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roblem behaviors: Social support as a buff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Worley, N. K. (1997). *Mental health nursing in the community*. St. Louise, MO: Mosby.
- Yoo, H. J., & Han, M. Y. (1995). Development of a daily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49-64.
- Yoo, J. S., Son, J. W., & Nam, M. S. (2008).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3), 419-430.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